

군인에서 불자되길 다짐



군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는 모습

호국적성사 군장병들이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났다.

1월 15일 25사단 71연대 파주 호국 적성사에서 거행된 수계법회는 군장병 42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이 가운데 수계를 받은 군장병 71명은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기리며 연비를 받았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수계식은 25사단 장 신동만 소장과 71연대장 이재홍 대령,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원과 화계사 청년회 불자들이 참석했다.

수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는 삶의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전환시켜주는 자기와의 약속”이라고 설명하며 장병들에게 삼귀의의 뜻과 오계(五戒)의 실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오늘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지 마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며, 불을 켜면 천년만년의 아등도 한 순간에 사라지듯 수계를 잘 지켜 인류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 참관한 신동만 사단장은 “수계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진신 된 불제자로 태어났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수계를 받은 장병불자들이 군 생활을 마친 후 사회인이 돼서도 헌신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를 받은 군장병 바다빈 병장(25사단 수색대대)은 “소대 선임이 불교 군종병이었고, 선임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게 됐다. 이 인연으로 제대 후에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 믿음을 실천하겠다”며 법회 소감을 밝혔다.

수계법회 후에는 화계사 청년회가 마련한 공연이 진행됐다. 화계사 청년회 출신 뮤지컬 배우 이민경 씨의 노래와 삼인조 퓨전국악그룹 ‘소리디딤’의 화려한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장병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속된 이번 수계법회 뒤에는 수년째 장병 불자 양

성에 힘써온 유기현 포교사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유기현 포교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포교방식 변화를 고민해 왔다. 그 결과 화계사 청년회의 협조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대령사찰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

유 포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재가불자들의 자원봉사로 군포교 활동을 해왔지만, 무엇보다 대령사찰들이 전방부대 포교활동에 적극 동참해 청년 불자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번 법회에 화계사 주지 스님을 모시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군장병 420여 명 중 71명 수계

전문 연예인 공연 열려 성황

대형사찰, 청년불자 육성 위한

불자들의 군포교 동참 절실

적성사 군종장교 범정 스님은 “어렵게 군장병들을 수계법회에 불러도 타 종교에 비해 비중은 법당 때문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71연대 아래쪽에 480세대 군인 아파트가 완공됐다. 그 아파트단지에는 이미 교회가 들어섰는데 군법당도 세워지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공연 준비와 진행을 맡은 화계사 청년회 김무아 회장은 군포교에 경험이 없어서 다소 걱정했으나 군장병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김무아 청년회장은 “최근 들어 불교 청년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회 창출이 없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군장병 포교와 더불어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법회 형식 등을 새롭게 구성해, 청년 불자와 군장병도 좋아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새터민 · 이주노동자 더 많이 돕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3500명 등 신년 계획

“자살예방 상담과 소외이웃 지원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18일 본부 사무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 캠페인과 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생명나눔은 특히 2011년 6월 개원한 ‘생명나눔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운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 12월 전화 및 면접, 이메일 상담 건수가 184건으로 활발한 활동상을 보였다”며

“올해에는 홍보활동과 함께 중립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6월 28일에는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0명 환우에게 2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다문화 가정, 새터민, 이주노동자, 조산족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에는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교계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게 되면 본부에 알려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희망자 3500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4000명을 목표로 모집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80~100회에 걸쳐 길거리, 자치단체 행사를 포함해 전국 각지 사찰과 조계종 교육과 연계해 장기기증 모집캠페인을 펼쳐나간다. 또한 조혈모세포 희망자 모집 캠페인은 광주, 부산, 경남, 대구, 제주도 지역 외에도 충청권, 강원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해오던 한다솜 희망음악회, 걷기대회, 천도재, 자비의 쌀 나누기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 밖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후원 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네이버 ‘해피빈’, 기업은행 ‘참좋은 기부’ 등 활성화를 통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ARS를 개설해 전화 한 통당 5000원의 기부금 모금을 전개해 나간다. ARS (060)703-1133

한편 일면 스님은 18일 동국대에 제2건학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총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중립학교인 동국대가 발전하면 불교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이사로서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나 기자

미얀마 학교 건립

백천장학재단, 더프라이스 협약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이사장 범등)와 백천장학재단(이사장 조명하)이 미얀마 낙후지역인 탄린시 민가문 마을에 교실 6칸 규모의 중학교 건물 한 채를 짓기로 하고 1월 19일 협약식을 가졌다.

종로구 더프라이스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천장학재단 조도성 사무국장과 더프라이스 상임 이사 묘장 스님이 협약을 체결했다. 백천장학재단은 더프라이스 측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소중하게 써줄 것을 당부했다.

민가문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어 진학률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중학교가 있는 도시까지는 걸어서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주성원 기자

문화재 우리 손으로

대학생 문화유산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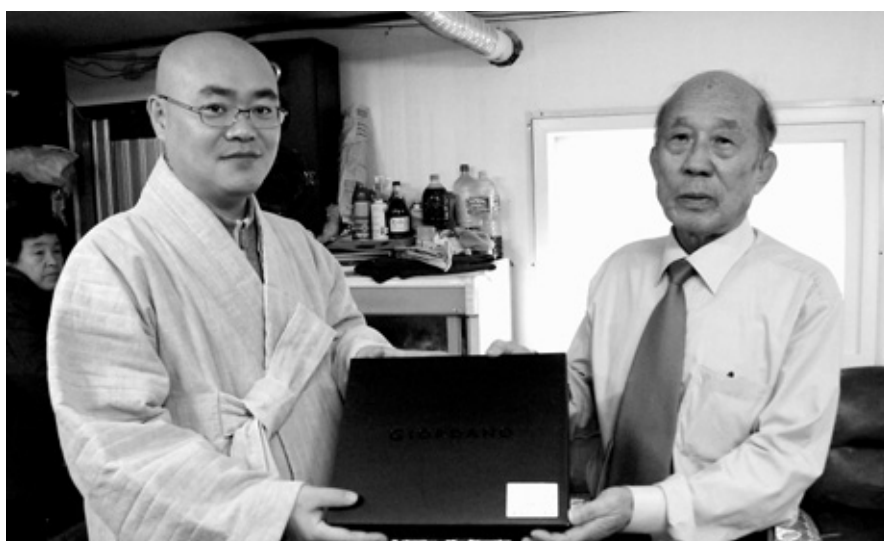
불자 대학생들이 올 한해 한국불교문화유산 알리미로 활동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1월 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제2기 템플스테이 대학생서포터즈(단장 김도현)를 출범시켰다.

서포터즈 30명은 지정사찰 월1회 이상 업무보조, 블로그·SNS 등 온라인 홍보, 모니터링 등 1년 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서포터즈 모집에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가 주축이 됐다. 대별련은 향후 서포터즈 활동까지 관리한다.

조동섭 기자



“어르신, 따뜻한 겨울 나세요”

조계종은 1월 19일 사회교장 묘장 스님을 대표로 홍제3동 개미마을 경로당에 쌀(20kg) 10포대와 초코파이, 목도리, 보온양말을 개미마을 오한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과 초코파이는 조계사에서, 목도리와 보온양말은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부처님 가르침 통해 영어가 늘었어요

국제포교사회 ‘제5회 자타카 영어암송대회’



자타카 영어암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Once upon a time a rich man gave a baby Elephant to a woman(옛날 옛적, 부자인 남자가 한 여자에게 새끼 코끼리를 주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개최한 ‘제5회 자타카(Jataka) 영어 암송대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암송소리가 울려 퍼진다.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회 참가 어린이들은 원어민을 능가하는 발음으로 자타카(본생경)의 이야기 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했다.

이날 참가한 24명 30명의 어린이는 1월 7일 70명 77명이 참가한 예선 경연을 뚫고 올라온 실력자들이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성실하게 각종 소도구까지 준비해 경연을 벌여 뜨거운 열기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암송대회는 ▷대상에 박주영(성동초5·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암사) ▷최우수상에 김은지(문정초3·비로자나국제선원)·김지영(효성초6·대구한국불교대

학) ▷우수상에 김준수(계남초5·봉은사)·구동욱(계남초6·봉은사)·이수연(영덕초5·비로자나국제선원)·강신지(원일초2·오산대각사)·신윤우(신서초6·국제선원)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지난 4회 때 보다 참가자 수가 약 2배가 늘었다. 지난 4회때 참가해 영어 실력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회에 참가한 권민철(부양초4) 어린이의 어머니 오윤영씨는 “2011년에 참석했는데 영어실력이 늘어서 한 번 더 참가했다. 불교공부도 같이 하게 되니 여러모로 아이 학습에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배광식 회장은 “이번 대회는 심사위원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 잘했다”며 “이 대회를 통해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할 부처님 정신과 유능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게 된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될 때의 동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의선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오는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합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이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이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증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